

## 초국적 이주 공간에서의 감정의 경제학

Johan A. Lindquist. *The Anxieties of Mobility: Migration and Tourism in the Indonesian Borderland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 이 규 호\*\*

1989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장삼각지대(Growth Triangle) 프로젝트는 황무지에 가까웠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접경지대인 바탐(Batam)을 정부와 초국적 자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후기 자본주의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주요한 시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전지구적 분업체제 속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초국적 기업들의 하위 생산기지로 기획된 이 공간으로 삼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더 나은 노동 조건 혹은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바탐으로 향했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었던 일련의 일탈을 누리고 싶어 했던 싱가포르인- 특히 싱가포르의 주변적 존재인 노동자 남성들은 마약과 성매매를 위해 이곳으로 드

---

\* 같은 저자의 같은 책이 2010년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에서 *Singapore's Borderlands: Tourism, Migration, and Anxieties of Mobility*라는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인류학과 박사과정'

나들었다. 다양한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탐은 양극단의 두 가지 시공간으로서 재현된다. 하나는 초국적 자본들의 공장이 준비하게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삶의 양식이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은 현대적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성매매와 마약이 판을 치고 있는 퇴폐적 공간인 것이다.

국제 생산기지이자 접경지대로서의 바탐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별화되어 있기도 하다. 국제적 분업체제의 국제경제지리학 속의 하청공장 역할로서의 바탐은 전세계 하청공장이 대부분 그러하듯, 저임금 노동, 유순한 노동, 불안전/불완전 고용과 단순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노동 시장은 대개 인도네시아 내부의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남성 이주자들은 이 노동시장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대상이며,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만성적 실업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서양의 근대적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남성은 가족임금제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로서의 생계부양자, 반대로 여성에게는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재생산 노동이라는 “의무”가 주어진 방식으로 성별화되었다면, 초국적 자본주의의 국제적 하청기지에서의 노동과 젠더의 문제는 이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이곳의 공장 노동자로 살거나 만성적인 실업 상태로 사는 것만은 아니다. 더 나은 임금 조건을 찾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건설 노동자, 일용직, 가정부 등등 다양한 합법적/불법적 경로를 통하여 장/단기적인 이주 노동을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노점을 하기도 하며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삶은 바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러 층위와 경로로 구성된 이주의 궤도 위에 놓여 있고, 바탐은 그 궤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류학자 조한 린퀴스트는 위와 같은 바탐의 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삶에 깊숙한 에스노그래피의 렌즈를 통하여 초국적 공간에서의 인간의 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전지구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급격히 높아진 인간의 이동성과 이주를 대부분 경제적 동기를 중심으로만 논의를 전개해왔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직업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곳이고, 어떤 곳들은 구직의 기회가 더욱 높았기 때문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짧게 말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오갔다.

하지만 린퀴스트는 이러한 이동을 추동시키고 재생산하는 내적 동기, 그의 표현을 빌자면 “감정의 경제학”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이주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지배적 정서와 감정이 이들을 계속 이동하는 주체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질서들은 또 다시 어떠한 이주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이 책에서 인도네시아의 바탐과 이주를 감정의 경제학의 회로 분석을 통하여 린퀴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다.

린퀴스트는 머란따우(merantau), 리아르(liar), 그리고 말루(malu)가 이주와 이동을 끊임없이 추동시키며 바탐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 감정과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머란따우는 순환적 이주(circular migration)의 행위를 의미한다. 집을 떠나 “기회”를 찾아 바탐으로의 이동, 다시 다른 도시 혹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이동, 비자만료나 불법체류에 의한 추방으로 인하여 바탐으로 다시 돌아옴 등등 이렇게 이주는 순환적 형태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머란따우의 회로 속에서 고향은 출발지이자 종착지이지만, “금의환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한편

으로는 도덕적 죄책감으로 인하여 “아직은”(이와 동시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리아르는 형용사로서 야생의, 불법의, 가짜의, 저개발의 등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향에서 바탐으로 이주를 실행할 때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 기회가 충분히 있고 누구나 그 기회를 잡아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도시로 바탐을 상상하지만,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바탐은 실상 리아르의 세상이다.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땅위에 대충 지어 놓은 리아르 집, 그 집들이 이루고 있는 리아르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혼인외의 리아르 동거, 집창촌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클럽에서 프리랜서로 하는 리아르 성매매 등등... 결국 이들의 상상속의 바탐은 실상 리아르로 가득찬 현실이었고, 이것은 바탐에서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자신의 하위계급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처절히 깨닫는 과정이 된다. 지천이 리아르로 가득한 상황 바탐에서 공장의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슬람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이슬람 복장을 더욱 챙겨 입는 것은, 자신이 리아르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혹은 리아르와 자신을 구별짓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이자 저항적인 행위이다.

부끄러움, 죄의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루는 이러한 지속적 이주 상태를 지탱시키는 중요한 감정의 바탕이 된다. 금의환향을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말루를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여성 이주민의 경우 혼외 관계를 갖거나 리아르 성매매의 경험 이 있거나 리아르 관계를 통해 출산을 하여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감정적 복합체로서 말루를 형성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리아르와 말루가 결합한 것은 다시 말해 머란따우를 더욱 강력히 추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린퀴스트는 바탐의 밤과 낮의 경계에 주목하여 이것이 사실상 같은 원리, 다시 말해 머란따우와 리아르 그리고 말루에 의해서 작동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낮의 경제는 규범적 영역 안에 속한 경제로서 공장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지는 바탐의 경제 활동이며, 밤의 경제는 비규범적인 영역의 리아르 경제로서 클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마약과 섹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제이다. 사실상 이 밤낮의 경제를 지속시키는 것은 여성 이주민으로서, 리아르 노동자인 것이다. 공장 노동자로서는 절대로 중산층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거나 혹은 각종 이유로 해고당하여 거리로 내몰린 여성들은 말루를 느끼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탐의 밤의 경제로 진입하게 되거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가사 이주 노동을 떠나거나 성매매에 나서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밤의 경제에서 마약 엑스터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주요 고객인 싱가포르인들이 일탈을 꿈꾸며 국경을 넘어 바탐으로 오게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돈 벌이를 하는 리아르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잠시나마 말루를 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사 노동자로서 국경을 넘거나, 성매매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주는 사실상 착취의 회전문으로 들어갈 뿐, 그들에게 말루를 씻어내고 고향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의 축적을 이루어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이 바탐을 떠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역시나 리아르의 인간으로 존재하며 특히나 불법체류자들과 비시민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 이로 인한 공포감과 고립감 등은 이들이 다시 바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린퀴스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말루와 머란따우의 연관은 바탐의 이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결정적이다. 말루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떠나야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의 내러티브에 스며든 테마라면, 공포감 혹은 고립감은 종종 그곳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표현되었다. 공포와 말루는 모두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이동하게끔 만든다. 머란따우의 감정 경제는 경제적인 성공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성공만을 지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Lindquist 2009: 142).

‘아직’ 혹은 ‘미완의’이라는 뜻의 불룸(belum)이라는 단어는 바탐과 그 공간에서의 삶들을 재현하는 언어이다. 바탐은 “아직” 개발이 덜 된 것이고, 싱가포르를 본떠 바탐이 동남아시아의 로테르담이 되겠다는 야심찬 정부의 기획도 “아직”인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은 바탐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이기도 했다. 말루와 리아르로 채워진 삶속에서 그들의 머란따우의 여정은 불룸 상태이며 이것은 계속 이들의 이주를 끊임없이 이끄는 근본적 요인들이다.

린퀴스트의 이 작업은 전지구화와 초국적 이동의 다양한 층위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과학적 담론들이 충분하게 살펴 보지 못했던 부분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준다. 전지구화가 단순히 경제의 전지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이동은 다양한 층위와 결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며, 이때 어떠한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이러한 이동성의 다양한 회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돈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연구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로 이러한 이주민들은 그가 지적한 것처럼 끊임없는 이주 상태에 놓여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한 지역에서 정착하거나 새롭게 가정/집(home)과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탐이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분석이 다소 어긋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끊임없는 이동 상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정착하게 한 감정의 또 다른 경제학은 무엇일까? 그것 또한 말루와 불룸, 리아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에스피리투(Espiritu 2003)의 작업

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이주 공간에서 새로운 자신의 집을 만들면서 새로운 문화정치학과 정체성의 정치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이다.<sup>1)</sup>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고향에 돌아갔으며 그들은 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금의환향을 하여 머란 따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면, 그들은 그가 표현한 것과 같이 “착취의 회전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감정의 경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분석에서는 이 이주의 회로에 들어오는 순간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말루는 좀더 다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말루가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주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탐 혹은 다른 이주의 공간이 자신에게 말루를 갖게끔 강제하므로 이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가야 하게끔 만드는 추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에서, 린퀴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이주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잇는 성장삼각지대에 국한되어 이들의 끊임없는 이주가 이들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난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초국적 이주 주체들의 이주 경로들이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갖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바탐지역과 성장삼각지대 이외의 이주 회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감정의 경제가 형성되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 있다. 포스트모던 인류

1) Yen Le Espiritu. *Home Bound: Filipino American Lives across Cultures, Communities, and Count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학에서 이미 많은 질문을 제기하였고 가끔은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도 식상한 연구자의 성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와 시선 등은 문화기술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찰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온 백인 남성인 그가 공장 여성 이주 노동자 혹은 성매매 여성들,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여 오는 소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만성적 실업상태의 남성들과 이야기 나누며 현지조사할 때, 연구자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관계와 긴장, 권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위치한다. 그의 인도네시아로의 “연구 이주”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고, 젠더, 인종, 계급 등에서 파생하는 수많은 권력관계는 어떻게 현지조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